

호레이스 G. 언더우드의 한국종교 연구

김홍수 (목원대학교 한국교회사 교수)

한국 개신교의 선교 초기에 한국에 온 선교사들은 한국사회의 낯선 환경에 부딪혔을 뿐만 아니라 기독교와 전혀 다른 한국의 종교와 만나야 했다. 이 상황에서 선교사들은 교회 설립 외에도 먼저 학교나 병원을 세워 선교 활동을 전개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인의 신앙생활을 이해하기 샤머니즘, 유교, 불교 같은 한국의 전통종교를 관찰하고 연구하였다. 언더우드(Horace Grant Underwood) 역시 선교활동에 치중하면서도 한국은 물론 중국과 일본의 종교에 깊은 관심을 가졌다.

언더우드의 생애에서 1907년 가을부터 1908년 여름까지는 저술활동에 많은 시간을 보낸 시기였다. 1908년은 1885년 내한한 후 23년이 되는 해였으며 나이는 49세로 접어들고 있었다. 그는 1907년 가을부터 1908년 겨울 사이에 『한국개신교수용사』로 번역된 *The Call of Korea: Political-Social-Religious*(New York: Fleming H. Revell Co., 1908)의 저술을 마쳤으며 동시에 그 해 여름 뉴욕대학에서 6회에 걸쳐 진행될 강연의 원고도 준비해야 했다. *The Call of Korea*에는 20여 년 동안의 자신의 선교활동을 정리한 내용과 그가 관찰한 한국의 정치, 사회, 종교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는데, 특히 3장은 한국인의 종교생활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다. 언더우드의 한국종교 연구를 더 잘 보여주는 것은 *The Religions of Eastern Asia*(New York: Macmillan Co., 1910)로 이 책은 1908년 뉴욕대학의 찰스 딘스 철학강좌(The Charles Deems Lectureship of Philosophy)에서 한 강연을 출판한 것이었다. 이 책은 애스톤(W. G. Aston), 레게(James Legge), 자일스(H. A. Giles)와 같은 여러 학자들의 일본과 중국에 대한 저서를 너무 많이 인용했다는 비판을 받았지만, 아주 짧은 시간에 저술된 것을 생각하면 놀라운 것이었다.¹⁾ 내용은 도교, 신도, 샤머니즘, 유교, 불교 등이 동아시아에서 어떤 역할을 해왔으며, 지금은 어떠한가를 다루면서 그것들이 어떤 신 개념을 가지고 있는가를 고찰하는 것이었다. 이 강연을 준비하기 2년 전에 언더우드는 애스톤의 저서 *Shinto*(New York and Bombay: Longmans, Green, and Co., 1905)를 읽고 긴 서평을 쓴 적이 있는데, 여기서 그는 중국, 한국, 일본종교의 밀접한 연관을 언급하면서 애스톤의 책이 신의 명칭을 한문이 아닌 순수한 일본어로 표기함으로써 한국이나 중국의 연구자가 세 나라의 종교를 비교할 수 있도록 배려하지 않은 점을 아쉬워한 바 있었다.²⁾ 이것은 언더우드의 동아시아 종교에 대한 관심이 뉴욕대학에서 강연을 부탁받기

1) L. H. 언더우드(이만열 역), 『언더우드 - 한국에 온 첫 선교사』(기독교문사, 1990), 270.

이전부터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자일스는 도교를 유일한 중국종교로 보았고, 녹스(G. W. Knox)는 신도를 일본인들의 생산물로 보았는데, 언더우드도 그들의 견해를 따라 도교가 중국종교를 대표하고 신도가 일본종교를 대표한다고 했으며³⁾ 한국종교를 대표하는 것은 샤머니즘이라고 생각했다.

이 글은 먼저 언더우드의 한국유교와 불교에 대한 이해를 정리한 다음 그가 특별한 관심을 기울였던 샤머니즘 연구의 내용과 의의를 살펴볼 것이다.

한국의 유교와 불교 이해

20세기 전후에 한국종교에 관심을 갖고 종교형편을 기술한 사람들은 여행가나 선교사 같은 서양 사람들이었다. 기독교 선교사들은 한국인들의 종교생활을 관찰했을 뿐만 아니라 적지 않은 선교사들이 그들의 관찰을 정리하여 서울에서 발간되고 있던 저널(*The Korean Repository*, *The Korea Review*, *Transactions of the Korea Branch of the Royal Asiatic Society*)에 또는 외국 저널(주로 *The Missionary Review of the World*)에 발표했으며 언더우드처럼 외국대학에서 초청받아 한국종교를 소개하고 그것을 단행본으로 펴내는 경우도 있었다.

선교사들은 처음에는 한국에 종교가 없다거나 있어도 있으나마나 한 정도로 생각했다. 이 관찰은 다른 나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원이나 승려들, 또는 종교적인 물품이나 행사 등 어떤 눈에 보이는 종교의 증거들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선교사들은 한국인들에게 종교가 없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한국에 종교가 없다는 주장은 1890년대 후반까지도 제기된 것 같다. 선교사 하디(Robert A. Hardie)는 1897년 *The Missionary Review of the World*에 기고한 글에서 한국에는 종교가 없다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별로 영향력이 없는 불교 외에도 윤리적 규범을 가진 유교와 하층민이 믿는 미신적 광신이 보편화되어 있다는 주장이 대립하고 있다고 기술했다.⁴⁾ 언더우드는 일반적으로 서울에는 사원이 없다고 말하지만, 이것은 큰 착오라면서 서울에는 꽤 큰 유교의 사당이 몇 개 있고 무속 신당도 있다고 말했다. 그 외에도 대저택에는 조상의 위패를 모시는 곳이 있고 정해진 날에는 위패 앞에서 제물을 바친다.⁵⁾

선교사들은 한국에 종교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한국인의 독특한 종교생활을 발견하기도 했다. 기포드(Daniel L. Gifford)는 유교적인 조상숭배, 도교적인 무당, 관수, 지관을 발견하고 한국종교가 유교, 불교, 도교의 삼교가 혼합되었음을 지적했으며,⁶⁾ 존스(George Heber Jones)는 한국인이 이론적으로는 유교, 불교, 샤머니즘을 구분하지만,

2) H. G. Underwood, "Shintoism(A Review)," *The Korea Review*(1906), 87-94.

3) Horace Grant Underwood, *The Religions of Eastern Asia*(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1998), 영인본, 1-2, 41.

4) R. A. Hardie, "Religion in Korea," *The Missionary Review of the World*(December 1897), 926-927.

5) H. G. 언더우드(이광린 역), 『한국개신교수용사』(일조각, 1989), 62.

6) D. L. Gifford, "Ancestral Worship as practised in Korea," *The Korean Repository* 1(1892), 169.

실제로는 그 종교들이 혼합된 형태로 마음속에 들어있다고 보았다. 결국 이 세 종교를 모두 믿고 있다고 했다. 유교와 불교 그리고 샤머니즘이 한국인들에게 상호 겹쳐있고 연관되어 있어 한국인들은 유교의 교육을 받고, 부인을 절에 보내 자식을 기도하게 하며, 병고에 처하면 무당이나 판수를 찾아간다는 것이다.⁷⁾ 헐버트(Homer Bezaleel Hulbert)는 한국인의 밑바닥에 깔려있는 신앙은 정령설, 샤머니즘, 배물교적 미신 및 자연 숭배사상을 포함하는 “원시적인 영혼 숭배사상”이며 다른 것은 그러한 신앙 위에 기초를 둔 상부구조에 불과하다고 묘사했다.⁸⁾ 헐버트가 한국인들의 혼합적인 종교생활에서 특히 정령설, 샤머니즘, 자연숭배 같은 민간신앙이 핵심을 차지한다고 보았듯이 언더우드 역시 불교나 유교가 아니라 샤머니즘을 한국인들의 대표적인 종교로 보았다.

한국에 유교, 불교, 샤머니즘이 확실히 존재하고 있지만, 언더우드의 눈에는 한국인들이 종교적이 아닌 것처럼 보였다. 그 이유로 사원이나 신사에 모여 있는 일도 없고 예배에 많은 시간을 들이지도 않고 헌금에도 인색하다는 점을 들고 있다. 아프리카나 인도, 중국, 일본의 열성적인 신자에 비하면 한국의 종교는 거의 한국인의 마음을 사로잡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기독교 선교사들이 처음 왔을 때 기존의 종교에 대한 한국인들의 믿음은 “충성심이 냉랭해지고 신앙의 대부분은 이미 잃고 있었다.”⁹⁾ 언더우드는 자신의 관찰에 근거해서 한국사회의 유교와 불교를 이해하였다.

유교는 한국에서 2천년 동안 존재해 왔으며 개인 신앙과 관련된 종교적 차원보다는 정치, 윤리, 전통의 차원에서 이해되었다. 한 선교사는 유교를 “황제 집안의 종교”요 따라서 “국가종교”라고 보았다.¹⁰⁾ 그것은 유교가 왕실과 지배계층의 종교로서 사회질서의 근간이 되는 것으로 보였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유교는 한국의 가치관과 긴밀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였다. 윤리체계로서의 유교 이해는 언더우드에게도 마찬가지였다. 비록 유교가 한국인의 사상과 생활을 형성하는데 적지 않은 공헌을 하였지만, 종교라기보다는 “효도에 기초를 둔 하나의 윤리체계”로 파악되었다.¹¹⁾ 처음 중국에서 들어왔을 때 어떤 것이었던 간에 언더우드가 한국에서 살펴본 것으로는 종교라고 이름 붙이기 힘든 것처럼 보였다. 오히려 누구나 지켜야 할 그리고 지키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되는 윤리체계였다. 그러나 유교는 단지 윤리적인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니었다.

언더우드는 한국인들의 조상제사 행위를 “유교 속에 남아있는 유일한 종교적 요소”로 보았다. 제사 행위에 대한 열심은 가장 엄격하다는 가톨릭 신자들 속에서도 보지 못했고, 또 힌두교인이나 회교도들 세계에서도 비견할 것이 없을 정도이다. 제사는 유교에서 “필수적”일 뿐만 아니라 워낙 보편적인 관습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미국식

7) George Heber Jones, "The Spirit Worship of the Koreans," *Transactions of the Korea Branch of the Royal Asiatic Society* 2(1901), 39.

8) H. B. 헐버트(신복룡 역), 『대한제국사 서설』(탐구당, 1979), 388-389. 이 책의 원제는 *The Passing of Korea*.

9) 언더우드, 『한국개신교수용사』, 61, 80.

10) George Heber Jones, *Korea: The Land, People, and Customs*(Cincinnati: Jennings and Graham, 1907), 54.

11) 언더우드, 『한국개신교수용사』, 62.

으로 말해서, “무신론자이고 이교도요 부랑자”라 할 수 있다.¹²⁾ 사람이 죽으면 세 개의 혼으로 나뉘어져 하나는 크고 넓은 하늘인 황천(皇天), 하나는 무덤, 하나는 조상의 위패 속으로 들어간다고 일반적으로 믿고 있다. 위패는 두 개의 좁고 가느다란 판을 마주대어 묶고, 그 안 표면에 죽은 사람의 이름을 써넣은 것이다. 제사는 이 위패 앞에서 지낸다. 한국의 조상제사에는 곡하는 관습이 있다. 울고 곡하는 것은 중국에서도 볼 수 있지만, 언더우드가 특별히 언급하는 것은 부모를 잃은 남자 상제의 모습이다.¹³⁾ 부친이나 모친이 사망하면 머리를 풀어 내리고 거친 삼베옷을 입고 새끼줄로 허리를 매고 하늘로부터 그의 얼굴을 가리는 커다란 두건을 쓴다. 손에는 죄지은 용모를 감추기 위해 가리개를 가지고 있다. 이 모든 것들은, 부모의 죽음은 아들의 죄에 대해서 하늘이 내린 저주요 처벌이라는 사고의 표현이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위엄 있는 남자의 상징인 상투를 틀지 못하며 심판자 앞에 선, 형클어진 머리를 한 범인처럼 보여야 한다. 감히 죄지은 하늘을 올려다보지도 못하며 모든 것로부터 그의 수치를 감추어야 한다.

제사를 통한 조상숭배는 번영과 성공이라는 행복한 세계에 이르는 수단이다. 언더우드에 따르면 중국인들과 한국인들은 사자와 생자의 행복이 제사에 있다고 믿고 있다. 한국의 조상숭배는 예식이 더 간소하다는 점에서 중국의 조상숭배의 축소형이라고 말할 수 있겠으나¹⁴⁾ 제사의 의의는 중국이나 한국에서나 동일하다. 이것을 소홀히 한다는 것은 삶과 희망에 대한 전반적인 상도(常道)를 벗어난 것이다. 국가적 차원에서 보면, 조상제사는 국가의 집단적 의례와도 같은 것이었다. 그러나 한국 기독교인들은 이 제사가 참다운 하나님에 대한 예배와 상충된다고 여겼다.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곧 조상숭배를 하지 않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믿었다. 이런 의미가 있는 제사를 선교사들은 우상숭배로 보았으며, 그 태도는 단호한 것이었다. 선교사들은 죽은 조상의 영혼을 불러 음식을 대접하고 절하는 제사행위를 “조상숭배”(ancestor worship)라고 불렀다. 그들의 눈에 제사는 한국인들이 지닌 “최대의 우상”이요 한국을 기독교화 하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었다. 기독교 선교 성공의 장애물인 조상숭배에 대한 예속은 한국인들에게 내린 “큰 저주”라고 생각하는 선교사도 있었다.¹⁵⁾ 언더우드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곧 조상숭배를 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기 때문에 복음의 진리에 관한 어떤 사상도 받기를 거부하고 있고, 어떤 말에도 귀를 기울이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다고 보고 있었다. 그러나 제사는 죽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과 관련되며, 동양의 가장 지혜로운 선현들과도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선교사들에게는 속수무책이었다.

유교는 민간신앙이나 불교에 비교할 때 덜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으며, 유교의 영향력도 그렇게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었다.¹⁶⁾ 선교사들은 무엇보다 한국인의 교육열과 지적인 우

12) 위 책, 63.

13) Underwood, *The Religions of Eastern Asia*, 170-171.

14) 위 책, 167.

15) 게일, 『전환기의 조선』(평민사, 1986), 51-54; 류대영, 『초기 미국선교사 연구』(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01), 119; C.C. Victon, "Obstacles to Missionary Success in Korea," *The Missionary Review of the World*(November 1894), 841.

수성이 유교의 경전 교육과 일정한 관계에 있음을 발견했는가 하면, 유교가 강조하는 인간의 도덕적 본성과 윤리는 기독교 윤리를 진지하게 실천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는 경우도 있었다. 언더우드도 유교가 다섯 가지의 덕을 가르치고 사회생활에 있어서 다섯 가지 인간관계에 중점을 두는 규범을 가르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선교사들은 유교가 기독교 복음을 준비시키는 기능을 수행한다고 보기도 하였다. 예컨대 존스는, 인간이 도덕적 존재이며 도덕법을 따라야 한다는 유교의 가르침은 기독교 윤리의 좋은 예로서 그것을 실천하도록 준비시켜 준다고 보았다. 언더우드는 한국인들이 유교를 수용함으로써 윤리의 도덕뿐만 아니라 조상숭배를 받아들였고, 재난의 시기에 천자로서의 왕과 백성들이 지고한 존재 하늘에 제를 지냈는데, 이것들이 “그림자”라면, 기독교는 “세상의 빛”이었다. 기독교와 동아시아 종교를 비교하면서 특별히 신의 관념에 관심을 가졌던 언더우드는 한국 종교의 신보다 기독교 신의 우월을 주장하면서 그 이유 가운데 하나로 기독교의 신이 “사랑하는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을 나타낸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그 하나님은 넘어진 자 곁에서 일으켜 세우시는 존재이며 인간을 위해 독생자까지 희생시키는 존재이다. 그러나 이런 신의 개념은 한국에서는 알려진 바 없다.¹⁷⁾

이처럼 언더우드는 유교에 긍정적인 요소가 있고, 또 유교가 다른 어떤 종교보다 더 강력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것이 한국인들의 욕구를 충분히 채워준다고 보지는 않았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람이 만든 신앙이고, 당연히 갖추어야 할 종교적 본성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¹⁸⁾ 언더우드는 유교가 윤리에서 부족한 것을 제공하려고 시도했으나 신학이 없으며, 단지 인간학으로 지칭되어 왔고, 현재만을 다룰 뿐 종말론이 없다고 주장했다.

유교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입장은 선교사들에게서 뿐만 아니라 기독교를 받아들인 한국인들에게도 나타났다. 이미 1895년 한 “교양 있는 한국인”은 *The Korean Repository*에 기고한 글, “한국에서의 유교”(Confucianism in Korea)에서 유교의 종교적 한계를 언급했다.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¹⁹⁾ 첫째, 유교는 신앙의 기능을 약화시키고 파괴한다. 유교는 불가지론적 체계라서 유교를 신봉하는 사람은 물질세계 너머의 진리를 믿을 수가 없다. 둘째, 유교는 성선설을 주장함으로써 교만을 양육시킨다. 셋째, 유교는 인간 이상의 고귀한 이상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신이나 신적인 인간을 만들어 낼 수 없다. 넷째, 유교는 이기적이고 이기심을 조장한다. 유교는 결코 가서 가르치라고 말하지 않고 와서 배우라고 말한다. 다섯

16) 류대영, 『초기 미국선교사 연구』, 194-195.

17) Underwood, *The Religions of Eastern Asia*, 252-253; 옥성득, “초기 한국교회의 단군신화 이해,” 이만열, 『한국기독교와 민족통일운동』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01), 308 참조.

18) 언더우드, 『한국개신교수용사』, 64.

19) “Confucianism in Korea,” *The Korean Repository*(November 1895). 이 글은 익명으로 발표되었으나 필자는 문장 속에서 자신을 “한 사람의 한국인”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 글은 같은 제목으로 *The Missionary Review of the World*(September 1896)에 다시 게재되었다. 여기서는 필자를 “By a Korean Christianity”로 소개하고 있다. 언더우드는 *The Religions of Eastern Asia*에서 이 글을 소개하면서 “고등교육을 받은 한 한국인 신사”의 글로 소개했다. 부록에서는 이 글의 필자를 “Hon Yun Chi Ho”(윤치호)로 소개했다. 이 글에서 “예정론”, “만인구원론”은 신학 용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필자는 미국에서 신학을 공부한 윤치호가 확실한 것 같다. 윤치호는 다른 글에서도 유교의 인간관을 비판한 바 있다.

째, 효를 최고의 덕목으로 삼아 이것만 있으면 다른 죄를 덮어준다는 원리를 내세워 여성을 노예로 격하시킨다. 일곱째, 유교는 입법을 통해 사람을 선하게 만들려고 한다. 그러나 권력자들은 얼마든지 권력을 남용할 수 있다. 여덟째, 유교 신봉자는 지나치게 관직을 탐한다.

한 마디로, 이 글은 유교의 “불가지론, 이기심, 교만, 독재, 여성 비하의 열매를 맺는 윤리체계는 좋은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다. 윤치호가 익명으로 쓴 이 글은 선교사들의 유교 이해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 글은 같은 제목으로 외국 저널 *The Missionary Review of the World*(September 1896)에 실렸을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활동하는 선교사들이 이 글을 토대로 삼아 유교를 이해하고 있었다. 선교사 하디는 훌륭한 윤리적 규범을 가지고 있는 유교는 한국에서 법과 질서 그리고 도덕의 척도를 세우는데 이바지했다고 보았다. 그러나 위의 글과 같이 유교체계가 교만, 이기심, 전체정치, 일부다처제 그리고 무신론을 조장함으로써 그 이득을 상쇄시켰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디와 마찬가지로 언더우드 역시 한국의 유교를 기술하면서 유교체계가 교만, 이기심, 전체정치, 일부다처제 그리고 무신론을 조장한다는 윤치호의 글을 인용하고 그 글 전문을 *The Religions of Eastern Asia*에 부록으로 실었다.²⁰⁾

언더우드는 한국불교에 대해서도 언급하는데 『한국개신교수용사』에서는 그리피스와 『은둔의 나라 조선』과 애스톤의 *Shinto*에 근거해서 한국이 일본에 불교를 전했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한국이 일본에 불교를 전한 확실한 증거로 언더우드는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사원에 남아 있는 최고의 불상이나 경전이 한국에서 가져간 것이고 일본의 일반적 건축양식이 근본적으로 한국과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원의 건축양식은 동일하다는 것을 제시한다.

그리피스에 의하면, 한국에서 불교가 가장 만개한 시대는 고려(918-1392)시대였다. 이 4세기 동안 불교는 “사실상 국교”였으며, 한국불교는 일본의 사원건축, 장서, 불상, 제단 기구 등에 영향을 주었다. 그러나 찬란한 역사를 누려온 불교는 “돈과 세속과 정치적 야심”으로 인하여 끝내 부패에 빠지고 말았다. 불교는 침체와 나락으로 떨어져 크게 부패하였으며, 농민들의 신앙으로서 겨우 명맥을 유지하였다.²¹⁾ 결국 그리피스의 한국불교 서술은 불교의 사상적 내용과 종교적 의미는 말하지 않고 불교의 국가와의 결탁과 부패, 무속적 경향만이 강조된 것이었다.²²⁾

불교의 국가권력과의 결탁으로 인한 쇠퇴는 선교사들이 한국불교를 언급할 때 지적되는 한국불교의 특징 같은 것이었다. 캐나다 출신의 선교사 게일은, 불교가 한국에 전래된 372년 이래 “다양한 정도의 타락과 비행”으로 얼룩져 왔다는 점을 지적하였다.²³⁾ 타락한 불교는 심지어 1391년 고려왕조의 몰락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았다. 언더우드 역시 한국 불교의 역사를 국가권력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언급하였다. 고려시대에 불교가 국교된 것은

20) Hardie, "Religion in Korea," 927; Underwood, *The Religions of Esatern Asia*, 171 그리고 180-182.

21) W. E 그리피스(신복룡 역), 『은자의 나라 한국』(평민사, 1985), 583.

22) 박노자. “19세기 말 - 20세기 초 서구 선교사들의 한국불교관,” 한국재단 창립 10주년기념 심포지엄 발표논문, 서울교육문화회관, 2001년 12월 13-14일,

23) 게일, 『전환기의 조선』, 57.

왕조의 창건자 왕건이 정권을 잡고 전국을 통일하여 열심히 사원과 암자를 세웠기 때문이다. 그후 불교도들이 정치적으로 활발한 당파활동을 하였고, 군사적으로는 신왕조에 대해 강력한 반대운동을 벌였기 때문에 불신을 받게 되었다. 언더우드는 적어도 이 사실이 수많은 사찰의 파괴와 사찰이 소유하였던 광대한 토지가 몰수당하는 구실이 되었다고 보았다.²⁴⁾

언더우드가 볼 때, 불교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 종교였다. 아직도 불교는 전국에 큰 절을 가지고 있으나 승려들은 천한 계급일 뿐 아니라 무식하고 게으른 사람들로 여겨져 경멸의 대상이었다. 승려들은 사회신분으로 보아 백정 다음으로 낮았다. 언더우드는 한 사찰에서 하루 밤을 보낸 적이 있는데, 이 때 만난 승려들로부터 자기들이 불자지만 불교를 믿기 때문이 아니고 생활수단으로 중이 되었다는 말을 들었다. 이 경험에 근거해 언더우드는 가장 열렬한 신자라고 생각되는 승려도 그들의 대부분이 인정하는 바와 같이 불교 교리를 좋아해서가 아니라 오직 생계를 얻기 위해 승려가 되는 사람이 많다고 보았다.²⁵⁾ 불교의 문제는 한국의 양반과 귀족들로부터 무시당하는 데서도 볼 수 있었다. 교육을 받은 사람, 그리고 양반과 귀족은 불교란 부인과 어린이들의 종교라 하면서 불교를 믿을 수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가족 중에 누군가 불행하게 되었다든가 병에 걸렸다 하면 어떻게 해서라도 구해보려고 승려의 도움을 얻으려 한다.

요컨대,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불교의 무속성과 국가와의 결탁, 부패, 그리고 쇠퇴상태를 언급하였다. 그러나 선교사들은 불교를 비판하면서도 부정적인 면만 본 것은 아니었다. 게일은 불교가 “인간의 영혼을 위해서 하나의 초라한 문”에 불과하지만, 한국불교에 석가모니가 가르친 “온유함과 자비로움”이 있다고 말했다.²⁶⁾ 선교사들 가운데서 중국불교와 한국불교에 가장 조예가 깊었던 올링거(Franklin Ohlinger)는 불교가 유교에 없는 내생의 해탈을 추구하며, 만인평등을 가르치며, 자기부정을 권장하는 등 불교가 많은 점에서 “진리에 더 가까우며” 종교체계의 거의 모든 도그마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면서 불교를 유교보다 더 긍정적으로 이야기하였다.²⁷⁾ 올링거처럼 불교를 좋게 평가하지는 않지만, 언더우드도 불교의 가르침이 자제, 즉 본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정욕이나 욕망을 억제시키며, 동물을 불쌍히 여기고 생물 전체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갖게 해준다는 점은 인정했다. 그러나 생명을 신성시하는 불교의 가르침에서 볼 때 승병(僧兵)은 이상해 보였다. 또 불교는 한국인들의 지고신으로서의 하늘숭배 전통에 적응하여 하나님 신앙을 허용하고 사찰에 모든 토착적 신들을 받아들였는데, 언더우드의 눈에 이것은 한국인들의 영적 욕구에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을 제공해 주려는 것이었다.²⁸⁾ 그러나 불교의 가르침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국민을 지도하는데 크게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지는 않았다. 이에 반해 유교는 잘 연구된 도덕체계가 있고 인간관계도 말함으로써 국민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고 보았다.

24) 언더우드, 『한국개신교수용사』, 65.

25) 위 책 74-75 그리고 Underwood, *The Religions of Eastern Asia*, 217.

26) 게일, 『전환기의 조선』, 58.

27) Franklin Ohlinger, "Buddhism in Korean History and Language," *The Korean Repository*(April 1892), 106-107.

28) Underwood, *The Religions of Eastern Asia*, 215-219.

한국의 대표적 종교로서의 샤머니즘 연구

초기 개신교 선교사들이 활동하고 있던 20세기 전후의 한국에는 유교와 불교는 쇠퇴해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으나 샤머니즘은 만연해 있었다. 선교사 클라크(C. A. Clark)에 따르면 1910년대의 경우 일제의 무당 탄압에도 불구하고 10만 명이 거주하는 평양에서 무려 3백여 명이 무업에 종사하고 있었다.²⁹⁾ 무업에 종사하는 이들이 많을 뿐만 아니라 곳을 쉽게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선교사들은 한국인들의 종교생활의 일부인 샤머니즘에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게 되었다. 언더우드는 샤머니즘에 주목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한국의 모든 신앙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으로 보았으며, 유교와 불교가 한국에 전래되기 이전부터 샤머니즘이 지배했고 심지어 불교와 유교가 가장 성하였을 때조차도 그 바탕에는 샤머니즘이 깔려있었다고 보았다. 언더우드의 눈에는 1900년대 초반에도 불교의 승려는 샤머니즘의 신앙을 간직하고 있었고 샤머니즘을 비난하는 유학자조차도 실제로는 샤머니즘을 강하게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따라서 샤머니즘은 한국에서 종교적인 견지에서 보아 가장 강력한 세력일 뿐만 아니라 한국을 대표하는 종교라고 보았다.³⁰⁾

언더우드는 『한국개신교수용사』에서 한국의 정치, 경제, 종교를 소개하면서 한국인의 “종교생활”을 독립된 장으로 다루는데, 여기서 샤머니즘을 소개하였다. 그는 *The Religions of Eastern Asia*에서는 제 3장을 “한국의 샤머니즘”에 할당하였다. 언더우드는 정령과 귀신에 영향력을 행사해서 질병을 치료하고 재앙을 피하게 해주는 무당과 판수를 샤만이라고 지칭하고, 샤머니즘을 이런 관례와 관련된 체계로 이해하면서도, 무속만이 아니라 민간신앙 전체를 샤머니즘으로 이해하였다.³¹⁾ 민간신앙은 민간층에서 전승되는 자연적 종교현상으로 언더우드는 민간신앙의 여러 형태에 관심을 가졌는데, 특히 무당을 주축으로 전승되고 있는 무속신앙에 큰 관심을 가졌다.

1900대에 들어서서 선교사들에 의해서 무속연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는데, 1910년 경까지는 헐버트와 언더우드의 연구가 대표적인 연구였다. 그들의 샤머니즘에 대한 연구는 무당, 의례, 신(神)등의 주제를 포함하였다. 헐버트는 1903년 4월부터 9월까지 *The Korea Review*에 “한국무당과 판수”(The Korean Mudang and P'ansu)란 제목의 글을 연재하였다. “한국무속연구사의 출발점”이 된 이 글에서³²⁾ 그는 무당과 판수를 민간신앙의 대표적인 두 유형으로 보면서 무(巫)란 말은 “속이다”를 의미하며 판수라는 말은 “운명을 결정하는 사람”을 뜻한다고 이해했다. 그들로부터 한국인은 축복을 받기도 하고 저주를 받기도 한다.

29) Charles Allen Clark, *Religions of Old Korea*(The Christian Literature Society of Korea, 1961), 193-194.

30) 언더우드, 『한국개신교수용사』, 67-68.

31) Underwood, *The Religions of Eastern Asia*, Lecture III, "The Shamanism of Korea"참조, 93-142. 한국 연구자들은 무속, 즉 샤머니즘을 민간신앙의 일부로 본다. 그러나 초기 선교사들은 샤머니즘이란 용어 안에 무속신앙뿐만 아니라 민간신앙까지도 포함시켰다. 이에 대해서는 김종서, “한말, 일제하 한국종교 연구의 전개,” 철학종교연구실, 『한국사상사대계』 6(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3), 각주 96 참조.

32) 최길성, “한국무속연구의 과거와 현재,” 『문화인류학』 제3집(1970. 11), 127.

무녀는 일반적 용어에서 “나쁜 사람”이라 불리기 때문에 무당은 “속이는 무리”를 뜻한다. 무당은 항상 여자가 되며 가장 최하위의 사회계층에 속해 있다. 무당은 영적 매개자의 일종인데 정령과 친숙하기 때문에 교류할 수 있다. 판수는 정령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다. 무당은 정령(귀신)을 살살 달래서 물리치나 판수는 직접 내쫓는다. 그런데 무당의 실제행위는 중국에서 유래했겠지만, 굿이라는 말은 한국의 토착어라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한국종교의 독특성을 이해하려는 헐버트의 시각이 드러난다. 무당의 기능은 굿을 통하여 잘 드러나며 중요한 것으로는 병굿과 죽은 자를 위한 굿이 있다. 헐버트가 발견한 바로는 병의 원인은 악령에 있으며, 무당은 어떤 악령이 왜 어떻게 환자를 괴롭히는지 안다. 그래서 무당은 질병을 예방하고 치유도 한다. 병은 배고픈 걸신이나 정령들을 푸대접할 때나 죽은 친구나 친척의 영혼이 산자와 친교를 원할 경우에도 생긴다. 이들을 대접하고자 굿을 한다. 만약 병이 죽은 친척의 영혼에 의한 것이라면 더 정성을 드려야 한다. 헐버트의 의하면 19세기 말과 20세기 초 사이에 가장 빈번하게 벌이던 굿은 병굿이다. 어떤 사람이 추락해서 상처를 입었다면 이 상처는 그 사건이 일어난 굿의 정령에 기인한 것이다. 굿은 환자의 집이나 무당의 신당에서 한다. 병굿이 무당의 치병기능이라면, 죽은 자를 위한 굿은 죽은 이의 영혼과 대화를 나누거나 그 영혼과 영원한 작별인사를 하게 한다.³³⁾

무당에 관한 헐버트의 견해는 무리를 속인다는 무리라든지, 무당은 모두 여자이고 가장 낮은 사회계층으로 취급받고 있으며 대개 결혼을 하나 예외 없이 버림받는다는 것 등을 중심으로 서술하는 것을 보면 부정적이었다. 무당이란 사람들을 속이는 존재로서 천대받아 마땅하다는 투이다. 언더우드는 헐버트의 무당 이해를 따르고 있다.³⁴⁾ 무당과 판수의 구별, 여성에 제한된 무당의 성, 하층 계급 출신, 나쁜 평판 등에서 그러하다. 그러나 언더우드는 판수에 대한 헐버트의 한자 해석을 따르면서도 헐버트의 무당의 한자 해석은 언급하지 않는다. 언더우드는 *The Religions of Eastern Asia*에 헐버트의 글 중 무당을 속이는 무리로 정의하는 부분을 부록으로 실고 있지만 그의 해석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았던 것 같다. 헐버트와 언더우드의 굿의 이해에서도 몇 가지 특징적인 것이 드러난다. 먼저 오랜 농경생활에서 형성된, 한국 샤머니즘의 의례를 대표한다고 할 수 있는 재수굿 내지 천신(薦新)굿에 주목하지 않고 병굿과 죽은 이를 위한 굿에 관심을 집중한 점이다. 헐버트는 무당의 여러 의례 가운데서 병굿과 죽은 이를 위한 굿을 가장 비중 있게 다루었다.³⁵⁾ 언더우드 역시 병굿과 죽은 이를 위한 굿을 길게 소개하였다. 언더우드는 죽은 이를 위한 굿을 다루면서 샤머니즘이 한국인의 고유한 신앙이지만, 천당이나 지옥 같은 관념은 불교에 기원을 둔 것으로 파악하였다.³⁶⁾

선교사들이 무당과 판수에 흥미를 가졌던 것은 당시 한국에서 그들이 민간신앙을 대표하는 두 유형이라고 보았기 때문이었다. 무속 외에도 선교사들은 당시 한국에서 사후의 세

33) 무당의 의미 및 굿에 대해서는 H.B. Bulbert, "The Korean Mudang and P'ansu," *The Korea Review*(April, 1903), 145-148 참조.

34) Underwood, *The Religions of Eastern Asia*, 123-129 그리고 『한국개신교수용사』, 76-77.

35) 조홍윤, “초기 개신교선교사들의 한국샤머니즘 이해,” 『동방학지』 제125집(2004년 4월), 99-103.

36) Underwood, *The Religions of Eastern Asia*, 130.

계, 수많은 정령들, 점복술, 풍수지리, 도깨비와 귀신같은 민간신앙이 어우러져 하나의 종교 세력을 형성하고 있다고 보았으며, 이는 곧 형언하기 힘들 정도로 타락한 미신 또는 우상 숭배 행위로 받아들여졌다. 따라서 민간신앙은 기독교 전파의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보았다. 언더우드에게는 샤머니즘이 선교사가 한국에서 대결해야 될 “가장 완고한 적”으로 보았다.³⁷⁾

언더우드는 샤머니즘을 부정적으로 보았지만, 그것을 관찰하는 과정에서 한국인들이 고대로부터 신적 존재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헐버트의 분류에 따르면, 신적 존재의 위계는 하나님, 오방신(五房神), 지신(地神) 등으로 이어지며, 마을신, 용신(龍神), 문신(門神) 같은 신도 있다.³⁸⁾ 한국인들이 우주의 지고한 주재자로 여기는 하나님은 다른 잡신과는 구별된다. 언더우드는 한국 샤머니즘의 특성을 언급하면서 위계(hierarchy)도 없고 조직화된 성직도 없고, 신당(神堂)은 서로 독립해 있어서 결국 교리나 샤먼의 말에 일관성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지만,³⁹⁾ 그도 한국 샤머니즘의 교리를 언급하면서 한국인들이 믿는 신에 관해 서술하였다. 언더우드는 한국인들의 공통적인 신앙을 하나님, 삼신(三神), 오방장군, 자연신령, 유령 또는 귀신으로 구분하였다.⁴⁰⁾ 무엇보다도 한국인들은 하나님을 믿으며 그는 세계를 지배하는 신이다. 그들은 다른 신들도 믿지만, 하나님이 다른 모든 신들을 통제한다고 주장한다. 한국인들은 하나님을 창조주라고 부르지는 않지만, 마니산 제단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단군이 세운 것이며 여기서 그는 그의 아버지인 환인, 즉 제석 또는 창조주께 예배했다고 말한다. 하나님에 의한 창조의 이런 관념은 이제 일반적인 신앙에서는 사라졌으나 아직도 한국인들은 불교도이거나 유교도이거나 민간신앙을 가진 자나 하나님이 만물을 주재하며 그가 만물의 아버지라는 것을 인정한다. 언더우드는 한국인들의 이런 신앙을 외래적인 종교와도 아무런 관련이 없고 원시적인 자연숭배와도 거리가 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며 그 하나님은 선교사들이 전파하는 여호와와 다를 바 없다는 헐버트의 주장을 직접 인용하였다.

한국인들은 삼신을 믿는데, 언더우드는 중국 도교에서 차용한 것으로 보았다. 삼신제석(三神帝釋)이 환인 환웅 단군의 삼위를 가리키는 것임을 몰랐다.⁴¹⁾ 삼신은 자손의 번창을 관장하는 신으로 세 명의 신인데도 한국인들은 셋을 분리해서 이해하지 않아 이것은 기독교의 삼위일체와 비교된다고 설명하였다. 오방장군을 그는 지역신으로 파악하고 그 아래 또는 그 권역에서 벗어난 것으로 각 마을의 도당신(都堂神)을 든다. 마을의 수호신이다. 제반 자연신령이란 모든 자연현상에 연관된 각기의 신령을 말하는 것이고 대부분의 질병도 이들 신령에 의해 야기되는 것으로 이해했다. 마지막 부류와 관련하여 무수한 악귀들이 또한 언급되어 있다.

37) 언더우드, 『한국개신교수용사』, 74.

38) 조홍윤, “초기 개신교선교사들의 한국샤머니즘 이해,” 392-397.

39) Underwood, *The Religions of Eastern Asia*, 107.

40) 위 책, 107-115.

41) 조홍윤, “초기 개신교선교사들의 한국샤머니즘 이해,” 105.

헬버트와 언더우드의 샤머니즘 신관 체계에서 가장 높은 위치를 차지하는 하나님 개념은 한국인들에게 고유한 개념으로 정령이나 자연계에 횡행하는 사신(邪神)과는 거리가 먼 존재로서, 유일신 개념에 가까운 것이었다. 모든 한국인들은 이 하나님이 우주의 최고 지배자라고 믿고 있으며, 이러한 점에서 볼 때 그 개념은 기독교의 여호와와 개념과 동일한 것으로 보였다.⁴²⁾ 이 하나님 신앙에 주목하여 헬버트는 그것을 순수한 유일신교의 형태이자 잔존으로 파악했는데, 언더우드는 그 주장을 받아들이고는 그것이 시대를 따라 내려오면서 자연종교로 발전하여 다신교(Polytheism)가 되더니 오늘날에는 일종의 단일신교(Henotheism)로 살아남아 있는 것으로 논의를 전개하였다. 이 주장은 언더우드의 한국종교 이해, 특히 샤머니즘 이해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아래에서 더 구체적인 설명을 필요로 한다.

종교의 기원을 연구하면서 진화론을 기본으로 하는 종교 연구자들은 종교가 애니미즘이나 주술, 토테미즘 등 아주 단순한 것으로부터 발전되어 나왔으며 인격적인 신에 대한 신앙은 대단히 느린 과정을 거쳐 이루어졌다고 주장해 왔다. 19세기를 전후해서부터 이 단계 진화이론에 대해서 회의를 품는 분위기도 나타났다. 랑(Andrew Lang)은 *The Making of Religion*(1898)에서 미개민족에도 지고존재에 대한 관념이 존재했다는 오스트레일리아 현지 조사자들의 관찰을 중시하고 진화론의 체계가 그렇게 확고부동한 것이 아닐지 모른다고 주장하였다. 20세기에 들어 랑의 이론을 가장 진지하게 받아들인 연구자는 독일의 슈미트(Wilhelm Schmidt)였다. 로마 가톨릭 신부였던 슈미트는 대부분의 원시인들은 초월적 존재를 믿으며 그들의 종교는 분명히 일신론적인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고대에도 지고신이 존재했다는 헬버트나 언더우드의 주장에서 우리는 종교의 단계진화이론에 이의를 제기했던 랑과 슈미트의 음성을 듣는 것 같다.

언더우드에 의하면, 종교의 발달에 관해서 진화론자들은 자연에서의 진화와 마찬가지로 종교에서도 진화가 있어왔다면 원시인의 가장 저급하고 가장 미숙한 미신들로부터(조상숭배나 주물, 자연숭배) 더 고상하고 영적인 지고의 하나님 관념으로의 진화, 즉 꾸준한 상승 경향을 보여주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종교진화 이론은 입증된 것이 없다. 진화론자들은 역사 속에서 주물과 자연숭배에서 출발해서 다신론으로부터 일신론으로 발전한 민족이나 국가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그것보다는, 믿을 만한 자료에 의하면, 상승이라기보다는 하강이 실제로 지속적인 경향이다. 인간은 최초로 창조주 하나님만을 예배하다가 그 후 왕을 신의 자손이나 대리인으로 신격화하고, 그 다음 영웅, 조상, 자연의 힘이 다신교로 자연숭배로 나타나고, 이어서 저급한 미신들로 하강하였다. 부분적으로 그리고 일시적으로 상승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현인이나, 예언자, 사도들이 나타나 그 종교에 빛을 더해줄 때 그렇다.⁴³⁾

언더우드는 위와 같은 종교 하강론에 근거해서 한국 종교를 바라보았다. 이 주장에 근거해서 한국종교를 분석하면서 그는 고대에 행해졌던 제천행사와 천신 신앙에서 일신교의 뿌리를 찾으려 무격신앙과 정령숭배는 후대에 종교가 타락해 가면서 생겨난 부차적인 부산

42) 헬버트, 『대한제국사 서설』, 389.

43) Underwood, *The Religions of Eastern Asia*, 231-234.

물로 보았다. 고대 한국인들은 하늘 혹은 하나님을 우주의 창조자요 통치자로 보고 예배하였다. 이것은 명백한 일신교이며 이러한 뿌리 깊은 믿음은 후대의 다신교 사회의 변화 가운데에서도 뚜렷이 흔적을 남기며 잔존해 왔고, 그것이 현재까지 이어져 왔다는 것이다.

한국의 원시신앙을 찾아 볼 수 있는 일차 정보원으로는 돌로 높은 언덕에 쌓은 제단과 고인돌, 미륵 등이다. 제단은 한국 어디서나 발견되는데 이것들 중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강화도 마니산에 있는 단군 사당이다. 이곳은 단군이 천상의 아버지인 환인을 경배하는 제단으로 “이 제단이 있는 정상에 서서 구름이 바닷바람을 타고 험준한 산맥위의 날카로운 봉우리 위로 솟아오를 때면 단군이 옆에 서서 하늘에 이르는 제단의 축조를 지휘하고 제물 위로 화염이 충천하던 아브라함의 시대를 상상하게 된다.”⁴⁴⁾ 고인돌 역시 어디서나 볼 수 있는데 주로 평지에 위치해 있다. 헐버트는 고인돌이 원시시대의 무덤이라고 단정하지만, 언더우드는 언덕이 매장지로 이용되었다는 옛 기록으로 볼 때 평지의 고인돌은 무덤일 가능성보다는 한국의 자연숭배의 지신(地神)들을 숭배하는데 사용되었다고 주장한다.⁴⁵⁾ 혼자 서있는 석상 미륵은 불상이지만 남자상과 여자상이 함께 서 있는 것은 분명히 불상인지는 아직 가려지지 않고 있는데 사람들의 경배의 증거라고는 말할 수 있다.

언더우드는 그밖에 기록문서에서 원시 신앙에 대한 두 번째 정보원을 발견하였다. 한반도의 남부지역에 관한 기록에서는 기원전 1세기경에 여름에는 신령에게 제를 지냈고 가을에는 추수 후 다시 제를 지내고 잔치를 벌였다. 각 동네마다 제사를 담당하는 제관이 한 사람씩 있었다. 같은 시기에 고구려 사람들은 하늘, 땅의 신령, 별의 신령, 그리고 볼 수 없는 권세들에게 제를 지냈다. 이것은 자연숭배의 형태이나 하늘을 가장 먼저 언급한 점에서 언더우드는 이것을 단일신교로 부를 수 있겠다고 말했다. 고구려 이전에 존재했던 부여에서도 하늘에 제를 지냈는데 거기서는 하늘이, 유일한 것은 아니지만, 신앙되고 예배된 본질적인 신이었던 것 같다.

시기를 더 거슬러 올라가면 단군에 대한 기록을 발견할 수 있다. 동감통감(東國通鑑)과 동사찬요(東史纂要)에 보면 태고에 창조주로서 “제석”이라 불린 신성한 존재 환인이 있었으며 그로부터 나온 존재 환웅은 이 세상으로 내려가도록 허락받았다. 그러나 이 세상을 신령(spirit)으로서 통치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발견하고는 성욕신을 원했다. 그가 짐승에서 사람이 된 사람에게 숨을 불어넣어 단군이 탄생했다. 전설에 의하면 그가 마니산에 제단을 세우고 여기서 창조주 환인에게 예배했다고 한다.

“... 원시시대에 환인이라는 하나님이 존재했는데, 제석 곧 창조주였다. 그에게서 나온 또 다른 신적인 존재인 환웅이 있었다. 그는 이 세상 아래로 내려가겠다고 요청하여 허락을 받았다. 하지만 신령으로서 세계를 다스리는데 어려움을 발견하고, 성욕신을 원했다. 자기 부정으로 인하여 동물상태에서 기적적으로 인간이 된 아름다운 여인을 보자 환웅은 그녀에게 숨을 불어넣었고 그녀는 수태하여 단군을 낳았다. 그가 곧

44) 헐버트, 『대한제국사 서설』, 281.

45) Underwood, *The Religions of Eastern Asia*, 102.

한국의 첫 임금인 분이시다.”⁴⁶⁾

언더우드도 위에서 말한 고대의 기념물들과 역사적 회고로부터 “순수한 원시적 일신교의 큰 개연성”이 있다고 결론짓고 한국의 오늘날의 신앙에서 이것에 대한 추가증거를 발견할 수 있다고 보았다. 상제에 대한 제사가 황제에게만 제한된 중국과는 달리 한국에서는 재난을 당할 때는 백성들도 왕의 요구로 높은 언덕에 올라가 하늘에 제사하고 기도드렸다. 언더우드는 이 점을 들어 한국은 아직도 단일신교의 형태를 가지고 있고 이것은 그들이 원래는 일신교도들이었다는 이론을 강화시켜 준다고 주장했다.⁴⁷⁾

고대 이후 한국에는 다신교의 샤머니즘이 발달하게 되는데, 한국인들은 다른 신적 존재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만물을 주재 감독한다고 믿는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창조자로 믿지는 않지만, 여전히 만물의 아버지로 여긴다. 하나님의 우위는 유교도나 불교도나 민간신앙에 의해서거나 인정된다. 예컨대, 언더우드가 만난 한 승려는 하나님이 가장 지고한 신이고, 붓다는 하급 신들 중의 하나에 지나지 않는다고 고백했다.⁴⁸⁾ 고대 한국인들은 하늘에 대한 순수한 일신교 신앙을 가지고 있었으며, 다른 나라와 달리 그들이 오늘날까지도 고대의 신앙의 일부를 간직할 수 있었던 것은 지난 세기 동안 외부세계와 단절되어 있었기 때문이다.⁴⁹⁾ 한국은 오늘날 다신교 사회이며 평균적인 한국인들은 배웠거나 그렇지 않거나 유신론자이며 신들의 존재를 인정하지만, 하늘을 최고신으로 섬긴다. 고대에는 이 신을 창조주로 생각했지만, 고대 한국인들의 그런 교리를 지금은 잃어버렸다.⁵⁰⁾

맺는 말

언더우드는 1885년 내한해서 처음에는 선교활동의 기초를 닦는 작업에 전념했으나 세월이 흐르면서 한국종교에도 관심을 갖게 되었다. 언더우드는 그 시대의 다른 동료 선교사들처럼 한국의 종교를 기력을 상실한 과거의 종교일 뿐만 아니라 한국인들의 기대로부터 떠난 종교로 보았다. 언더우드는 중국, 한국, 일본종교를 비교 연구하는 *The Religions of Eastern Asia*에서도 자신의 한국종교 관찰과 경험에 의지하여 인생의 제 문제를 푸는데 동아시아 종교가 절대적으로 불충분할 뿐만 아니라 신의 최고의 이상을 전달할 능력도 없다는 것을 논증하고자 했다.

한국종교에 대한 이러한 부정적인 인식에도 불구하고 선교적 차원에서 보면 한국의 전통적인 하나님 신앙은 언더우드에게는 기독교 전파에 중요한 토대가 될 자양분으로 보였다. 이런 차원에서 언더우드가 한국종교 중에서 그래도 호감을 갖고 본 것은 유교와 샤머니즘이었다. 그 중에서도 언더우드는 샤머니즘이 한국의 대표적이고도 고유한 신앙전통인 것을 발

46) 위 책 105-106.

47) 위 책, 105-107.

48) 위 책, 110.

49) 위 책, 132, 242.

50) 위 책, 243.

견하고 그것의 실체 파악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는 샤머니즘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면서도 샤머니즘으로부터 한국인의 고유한 하나님 신앙을 찾아내서 그것을 통해 한국인들이 고대부터 신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서 언더우드는 한국종교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첫째, 고대 한국에 일신교가 존재하였으며 오늘날은 일신교의 잔존물만 남아있다. 둘째, 종교 진화론에 반대하고 종교 하강설을 주장하였다. 한국종교사는 종교 하강설을 입증해 주는 좋은 예다. 셋째, 한국종교는 전통적인 하나님 신앙을 통해 기독교 복음을 예비하였다. 1910년 에딘버러에서 열린 세계선교대회는 기독교와 다른 종교와의 관계를 정리하면서 기독교가 다른 종교의 열망을 성취하고 완성한다고 보는 견해를 채택하였는데, 언더우드의 종교신학도 이런 성취론의 입장과 다르지 않았다. 넷째, 기독교의 신 개념이 한국종교의 신 개념보다 우월하다.

언더우드의 한국종교 연구는 선교적 동기에서 이루어진 것이지만, 한국종교를 부정적으로 보면서도 그것을 이해하고 한국종교와 기독교의 접촉점을 발견하려고 노력하였다. 언더우드의 이런 태도는 오늘날 많은 교회들에서 한국의 전통종교와 전통문화가 무조건 배척되거나 무시되는 상황에서 그것들에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시사하는 바가 크다.